

# IFES 정책보고서

2021-08



## 인도-태평양 지역 내 쿼드(Quad)를 통한 협력과 전망 -해상 실크로드와 쿼드간 견제와 균형-

강 지 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강지연

경희대학교 정치학박사

한세대학교 글로벌문화협력센터 연구원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대표 연구 “평화유지군 임무 지역의 민간인 보호 실패 결정요인”

IFFS 정책보고서 2021-08

## 인도-태평양 지역 내 퀘드(Quad)를 통한 협력과 전망 -해상 실크로드와 퀘드간 견제와 균형-

---

인 쇄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발 행 2021년 9월 2일 목요일

발행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 소 (03053) 서울 중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전 화 02-3700-0700

팩 스 02-3700-0707

정 가 비매품

I S S N 2734-0856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I. 서론	7
II. 중국의 일로(一路: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공세적 해양진출	13
1. 군사·안보 분야	14
2. 경제·외교 분야	21
III. 쿼드(Quad)를 통한 지역 협력과 중국 포위 구상	27
1. 쿼드(Quad) 협력 변화	27
(1) 쿼드 1.0	28
(2) post-2017	30
(3) 쿼드 2.0	32
2. 쿼드 국가들의 군사·경제 협력	38
(1) 군사협력	38
(2) 경제협력	40
IV. 결론: 향후 전망 및 시사점	45





# I 서론



## I. 서론

-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으로 중동에 집중되었던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라크전쟁의 종식,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중국의 경제·군사 성장과 함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으로 변경됨.
-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중요 위협으로 인식되었으며, 주변국인 일본, 인도 등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은 일방적인 육·해상 내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2006년 급격히 증가된 중국의 국방비를 비롯한 군사력 및 훈련 강화, 인도와 국경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은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굴기(peaceful rise)에 반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의 지역 내 무력 성장에 더욱 무게를 두게 함.
- 중국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증대는 지역 내 강국으로서의 성장을 넘어 전지구적 패권국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나타

내며, 미국에게 위협적 존재로 인식되기에 충분함.

-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는 중국의 전방위 진출을 위한 국가최상위 전략으로 중국의 군사·경제 영향력 확대를 통한 전지구적 패권 강화로 해석할 수 있음.
- 중국은 접근금지/지역거부(A2/AD, Anti Access/Area Denial) 능력 향상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 방어 능력을 저지 시키면서 미국에게 안보 위협으로 인식될 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행동 강화 및 해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내 현상 유지 변경 의지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도 위협으로 인식됨(Vasudeva 2020: 28).
- 중국의 부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법, ASEAN 중심의 다자주의, 민주적 가치, 지역 국가들의 자체 군사력 강화, 상호 및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라는 틀을 무너뜨리기 시작함.
- 지역 내 현상 유지를 원하는 국가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쿼드(Quad)가 추구하는 비전에 동의하고 있음(Kliem 2020: 272).

○ 본 보고서는 쿼드를 對중국 견제 협력체라고 분석하며, 이를 쿼드의 내용 변화 과정에서 찾고 ‘쿼드 1.0’, ‘post-2017’, ‘쿼드 2.0’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함.

- 공식적인 쿼드는 2007년 쿼드 1.0과 2017년 쿼드 2.0 두 번의 기간으로 나뉘지만, 쿼드 1.0과 2.0 사이 10년의 공백 기간에도 비공식적이지만 4개국 간의 군사, 경제, 외교 협력 및 교류가 진행

되었다고 보여 3단계로 구분<sup>1</sup>할 수 있음.

- 2012년 10월 시진핑 취임 이후 중국의 군사력 팽창 및 경제성장과 더불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전방위 군사력 확장, ▲아세안 국가 대상의 경제 투자 확대, ▲국경 및 해양 분쟁국가들과의 충돌 증가, ▲A2/AD 능력 향상 등이 미국 및 지역 내 국가들의 안보 불안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 2.0 제도화과정은 對중국 견제를 위한 현실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군사 및 경제 활동을 통해 ▲중국의 지역 내 세력 확장과 주변국들이 인식하는 안보 위협을 확인하고, ▲쿼드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안보 틀로써 구분되는 이유, ▲향후 한국의 참여 방향 및 전망을 모색하고자 함.

1 2007년과 2017년의 쿼드가 범위, 내용, 성격에서 서로 다르다고 보여 쿼드로 통합 지칭하지 않고, 쿼드 1.0과 쿼드 2.0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며, 유럽의회조사처(EPR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등의 연구기관 및 쿼드 관련 연구(Paik & Park) 등도 본 보고서와 동일하게 쿼드를 1.0과 2.0으로 구분하여 사용.





## II

# 중국의 일로(一路: 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공세적 해양진출



## II. 중국의 일로(一路: 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공세적 해양진출

- 중국은 대양으로의 해군력 확장, 남중국해와 같은 자원 보유 지역에서는 국제법을 무시한 주권 주장, 주요 거점지역에 대한 자금 투자와 이용권 및 운영권 확보 등으로 인해 주변국뿐만 아니라 지역 내 동맹국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위협 요인으로 인식됨.
  - ‘일대일로(一帶一路)’<sup>2</sup>는 시진핑 시기 중국 정부의 최상위 전략으로 자국 경제성장을 위한 원활한 원유 수급 등의 인프라 구축, 분쟁 지역에서의 주권 유지 등과 연관되어 있음.
  - 특히, 쿼드 4개국의 관심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일로(一路)’와 중첩되는 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들은 지정학적으로 중요 요충지임과 동시에 쿼드 참여국과 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임.
  
- 2021년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는 ‘강한 군대를 통한 국가 안전 보장’, ‘외국 세력의 對중국 압박에 대한 경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의지’ 등의 메시지 전달을 통해 중국의

---

2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주변 국가들을 연결하여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주창. ‘일대일로’는 크게 육로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一帶, One Belt)’와 해상 중심의 ‘일로(一路, One Road)’로 구성.

지역 내 세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나타냄.

-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은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군대가 강해야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그 어떠한 외국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며 …(중략)… 용납할 수 없다”, “누가 이런 망상을 하면 …(중략)…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다”, “어느 누구도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중략)… 막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 등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를 사용함(인민화보 2021).
-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군의 현대화를 통한 강군(強軍) 계획을 발표. 강한 군대 건설이 지역내 평화발전과 자국의 현대화를 위한 길이며, 2035년까지 군의 현대화 달성을 통해 2049년 세계일류군으로 도약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DoD 2020).

## 1. 군사·안보 분야

○ 중국의 군사비 증가, 인접 해역에서의 군사훈련 및 무력 행동 등과 더불어 인도와의 무력 충돌, 일본·베트남·필리핀과의 해양 분쟁, 대만해협에서의 갈등은 쿼드 참여국가 및 아시아 국가들에게 안보 위협으로 인식됨.

- 일본은 센카쿠/다오위다오(Senkaku/Diaoyu islands) 분쟁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이며, 중국 해안 경비대 기습과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 증가로 하루 2회 이상 전투기가 출동한

바 있음(Lendon and Wakatsuki 2020).

- 인도는 중국과 라다크(Ladakh) 지역에서의 충돌로 인해 2020년 5월 지역 내 분쟁 45년 만에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Boutik 2020), 중국은 인도와의 직접적 충돌 이외에도 인도와 분쟁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및 'Sea Guardians' 합동군사훈련 진행을 통해 인도양에서 인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음.
- 호주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통해 친중파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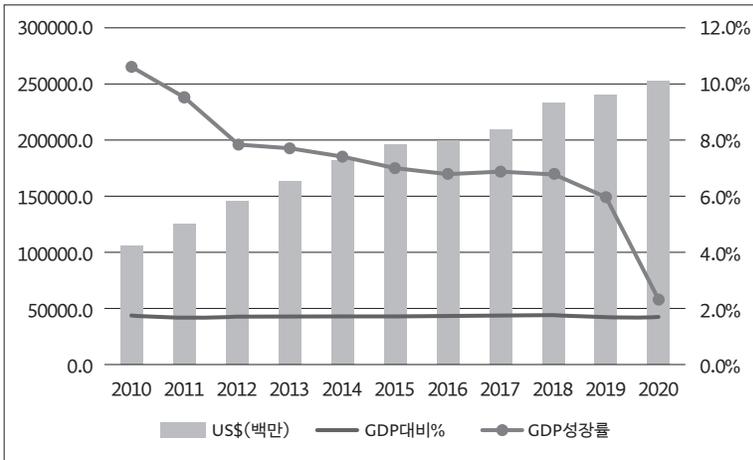
○ 특히, 중국의 2006년 국방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된 약 514억 달러였으며, 2008년에는 이보다 더 상향 조정된 (2007년 대비) 26%까지 급속히 증가(SIPRI 2021b). 2020년 중국의 국방비는 약 2천 500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매년 감소하는데 비해 국방예산 비율은 매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공격적인 증가라 할 수 있음.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민해방군(PLA)을 자발적으로 400만 명 축소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의 가시적 축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sup>3</sup>

3 국방비 지출 비율이 기록되기 시작한 1989년부터 2020년까지 GDP의 약 1.9%를

- 중국의 자체 개발 항모 및 스텔스 전투기 등의 개발로 중국이 주장하는 군사력 축소는 단순 병력 감소에만 그치고 있다고 보임.

[그림 1] 중국의 군사비 변화(2010-2020)



출처: SIPRI 2021a; SIPRI 2021b; World Bank 2021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중국은 군사비 증가와 더불어 EEZ 주변에서의 군사 행동을 도모하고 있으며, 군사력 확대와 더불어 자국의 영토 방위, 항행(navigation)의 자유를 근거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대만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지속적으로 침범함.

- 이는 실제적인 무력 행사 여부를 떠나 향후 인도-태평양 뿐만 아

매년 국방비로 지출. 2010년 이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약 1.7%를 매년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 사용 비용(US\$)을 볼 때 지난 10년간 중국의 국방비는 꾸준히 증가(SIPRI 2021a).

나라 한반도의 영해 및 영토 경계 지역에 대한 주권 수호, 민간인 어업 활동 및 항행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2019년 7월 이후 약 1년 5개월만인 2020년 12월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은 H-6 폭격기 등 군용기 4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동원됐으며, 이전과 달리 러시아와 함께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였음(신규진 2020).
- 2021년 5월에는 중국 군용기 13대(Y-8 기술정찰기·Y-8대잠초계기 각 1대, 15일 Y-8 전자전기 1대 등)가 대만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였음(윤고은 2021a).

○ 중국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 주요 국가의 항구에 대한 이용권 획득과 더불어 2008년 자국 상선 보호를 목적으로 중국 해군의 자발적인 소말리아 파병을 추진하기도 하였음.

- 주요 해로 인접국가의 항구 이용권 획득 및 해외 파병 등을 통한 원거리 항행은 근해(近海) 뿐만 아니라 원해(遠海)에서의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쿼드 정상회담 이전부터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은 합동 군사훈련 및 자체 외교활동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연대를 형성하여 대응함.

- 특히, 동해와 동중국해 등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의 상공에서 합동 순찰 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상군 훈련 및 해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음.
- 러시아는 2010년부터 매년 러시아 남부, 서부, 동부, 중부 4개 지

역에서 순차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중부지역에서 실시한 ‘Tcentr-2019’ 훈련에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중앙아시아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이 참가하였음(국방일보 2019).<sup>4</sup>

-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해상 훈련은 2005년 블라디보스토크항과 중국 산둥반도 지역을 시작으로 발트해, 황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거의 매년 실시하고 있음.

<표 1> 중국-러시아 합동 해상 훈련 현황(2005-2020)

년	월	장소
2005	8월	블라디보스토크항, 중국 산둥반도
2007	9월	아덴만
2012	4월	칭다오 인근 황해지역
2013	7월	포르트대제만
2014	5월	양쯔강 하구 동쪽, 동중국해 북쪽 해상 및 공역
2015	5월	지중해 해상 및 동쪽 영공
	8월	블라디보스토크 연안 포르트대제만, 동해 해상 및 공역
2016	9월	잔장(湛江, Zhanjiang), 잔장 동쪽 해상 및 공역
2017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Baltiysk, St. Petersburg), 발트해 남동부
	9월	블라디보스토크 연안 포르트대제만과 남오호츠크해 중간 지정 해역

4 참가 회원국은 러시아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총 8개국 임.

2019	4월	칭다오 인근 황해지역
	7월	동해, 동중국해지역
2020	12월	동해, 동중국해지역

출처: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49; Weitz 2021: 7-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 관계가 새로운 시대 조율을 위한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임을 강조함.
  - 중국과 러시아군은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을 지속하고, 고위급 관계자 간 교류·군사훈련·장비·기술·대테러 등에 있어 공조를 확대하고 있음(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36).
  - 2012년부터 7차례에 걸쳐 중국과 러시아 군부가 전략적 협의를 진행했으며, 중국인민해방군은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 측의 요청으로 러시아의 ‘보스토크 전략훈련(Vostok Strategic Exercise)’에 참여하기도 했음.
  
- 중국은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지역 내 주권 방어 및 훈련 명목으로 군사적 위협 행동을 하고 있으며, 분쟁 지역에 대한 국제법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국제사법기관인 상설중재법원(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권리와 자격에 대한 불

인정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남중국해 내 인프라 구축 및 동중국해 순찰 강화 등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음(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13-15, 40).<sup>5</sup>

- 2012년 이후 해상안보를 이유로 4,600척 이상의 해상보안순찰선 배치와 서태평양에서 원해 전투 훈련을 위한 중국인민해방군해군(PLAN)의 항공모함 배치, 남중국해와 칭다오 인근 해역·영공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공군(PLAAF)과 함께 남중국해 전투 순찰, 동중국해 안보 순찰 등을 실시한 바 있음.
- 2020년 3월에는 수상함, 잠수함, 전투함을 동원하여 남중국해 해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대공, 대함, 대잠수함, 지상공격, 함대항법 등 20가지 이상의 전투 지향 훈련을 실시(Liu Xuanzun 2020)<sup>6</sup>하기도 했음.

---

5 필리핀은 중국이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내 부속 도서에 대한 영유권에 대해 2013년 1월 22일 상설중재법원에 중재 소송을 제기(케이스 번호 2013-19)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필리핀이 요청한 중재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으나, 상설중재법원은 2016년 7월 12일 최종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리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원천 및 특정해양지형지위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 된다고 최종 판결(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016).

6 본 훈련은 미국 군함과 전투기가 남중국해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한 이후 이뤄졌으며, 중국은 미국이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

## 2. 경제·외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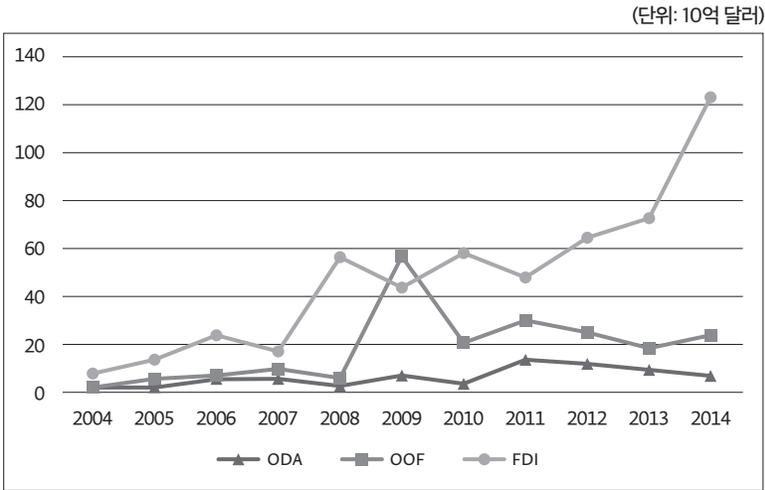
-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인도 주변국인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등 지역 내 약소국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음.
  - 중국의 대외투자 자금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음.
  - 중국의 대외투자 자금(ODA, OOF)<sup>7</sup>은 주로 에너지 생성과 공급 분야에 사용되며, 특히 OOF 자금의 에너지 생성과 공급 투자 비용은 나머지 분야의 투자 비용(농수산, 정보통신, 산업, 광업, 건설, 교통, 운송, 저장)을 합한 것 보다 약 천억 달러 많음 (AIDDATA 2021).<sup>8</sup>
  - OOF 자금이 ODA 자금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원조 비용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생성 및 공급 투자 비용에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원조의 방향성이 '일대일로' 연선국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예측 가능함.
  - 일대일로상의 중요 국가 내 건설 및 사용권을 획득한 상업적 항구

7 AID DATA에서 수집하는 중국의 대외투자 자금은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공적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기타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s) 뿐만 아니라 공식재정이지만 ODA와 OOF에 포함되기에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모호한 공식재정(Vague OF, Vague Official Flows)으로 구성되어 있음.

8 2014년 기준, ODA와 OOF에서 농수산 100억 달러, 부채관련조치 130억 달러, 정보통신 169억 달러, 산업·광업·건설 303억 달러, 운송 및 보관 888억 달러, 에너지 생성 및 공급 1341억 달러, 기타 613억 달러 사용.

건설 또한 건설 규모 및 시설 등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군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2] 중국의 ODA·OOF·FDI 비교(2004-2014)



출처: World Bank data; AIDDATA를 바탕으로 저자 구성.

- 중국은 국내 경제 안정화를 위해 원활한 원유 수급을 목표로 남중국해 등의 해상수송로 및 내륙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주요 요충지 국가들 내 해군 기지 건설을 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지부티(Djibouti)와 탄자니아의 주요 항구에 대한 이용 및 개발을 시작. 지부티의 도라레하(Doraleh) 다목적 항구는 2017년 8월 가동을 시작했으며, 병영·헬기계류장·군용부두 등 군사시설을 건립. 탄자니아의 바가모요(Bagamoyo)항은 현재 개발 진행 중임(김계환 2020; 황희경 2013).

- 아시아 지역에서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주요 항구의 이용권을 획득. 파키스탄의 과다르항(Gwadar Port), 스리랑카의 함반토타항(Hambantota Port)은 각각 40년과 99년의 사용권을 가짐(배인선 2016; 나확진 2017; Lee and Myint 2017).

○ 중국은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up>9</sup>을 통해 중동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SLOCs)상의 국가들과 관계 강화 및 발전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7월 현재 총 5개국의 주요 항구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였음.

- 중국이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본 전략을 실시하게 된 주요 원인은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 기반을 두고 원유와 광석의 주요 수송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앞선 항구 확보 국가들을 살펴보면 호르무즈해협(지부티), 인도양(스리랑카, 탄자니아), 말라카해협(미얀마) 등 중요 해로와 인접한 국가들이 확인 가능함.

○ 중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금리 대출 형식의 자금 지원,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을 통해 인프라 및 공공재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국가에 제공하면서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對중국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얀마는 ‘일대일로’에 위치한 국가 중 시진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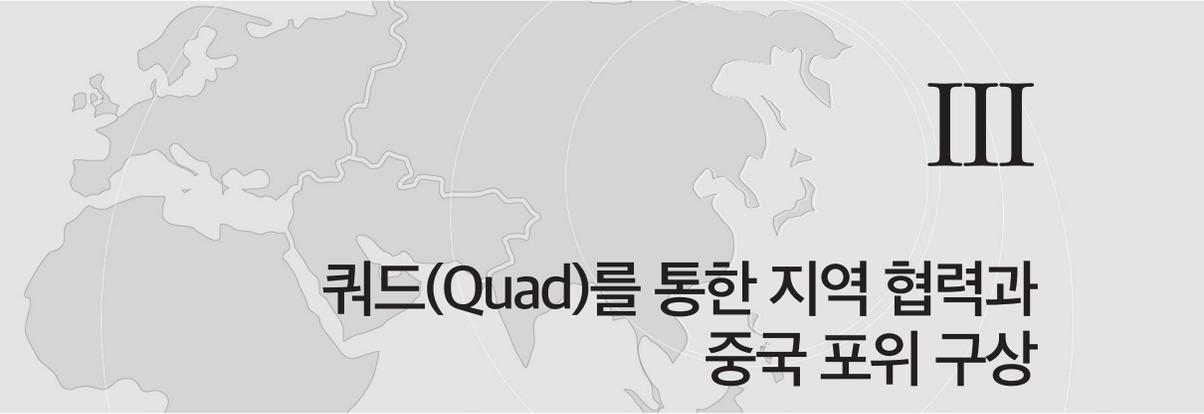
---

9 진주목걸이 전략은 동중국해-남중국해-캄보디아-태국-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중동-아프리카에 이르는 석유의 안전한 수송로 확보를 위한 전략임(Pehrson 2006).

2020년 첫 해외 방문 국가로 선정할 정도의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對미얀마 투자는 2020년 3월 기준 약 2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함(Myanmar Investment Commission's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2020).<sup>10</sup>

---

10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 금액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미얀마 투자위원회의 투자 및 기업 관리국 보고서로 외국인직접투자자금(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만 확인 가능.



# III

## 쿼드(Quad)를 통한 지역 협력과 중국 포위 구상



### III. 쿼드(Quad)를 통한 지역 협력과 중국 포위 구상

- 중국의 경제·군사 성장은 쿼드 4개국을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요소로 인식되었음.
  -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에서의 세력 확장은 미국·일본·인도·호주 모두에게 현상 변경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력은 일본의 '자유와 번영의 호(Arc of Freedom and Prosperity)'의 구상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비전통적 안보에 대한 대응에서 쿼드 1.0으로 이어짐.
  - 쿼드 1.0은 명확하게 중국 견제가 목적이 아니었으나 중국의 일대일로 중심의 해양내 세력 확장 이후 4개국 협력이 중국 견제의 성격을 가진 쿼드 2.0으로 전환됨.

#### 1. 쿼드(Quad) 협력 변화

- 2007년 조직된 쿼드 1.0은 일회성 대화로 마무리되고, 10년 후인 2017년 마닐라에서 쿼드 2.0이 추진 됨. 쿼드 2.0은 기존의 쿼드

1.0에 비해 ‘재난 구호’ 이외에 ‘규칙 기반 질서’, ‘국제법 존중’, ‘해양안보’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 쿼드 2.0이 구성된 시기인 2017년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 남중국해 내 중국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2017)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권력,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여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음.
-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전초 기지 건설, 군사력 확대 등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주권을 약화 시킬 것이라고 언급 (The White House 2017).

○ 미국·호주·일본·인도 4개국은 공통적으로 쿼드 2.0을 통해 중국의 경제·군사 부상을 견제 하면서도 쿼드 2.0이 對중국 협의체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2.0이 군사동맹이 아니라 4개의 민주주의 국가가 안보, 경제, 기술, 기후변화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확장형 플랫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The White House 2021a).

## (1) 쿼드 1.0

○ 쿼드 1.0은 2004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쓰나미에 대응하

기 위해 조직된 임시 그룹으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일회성 대화 형태로 시작함.

- 이후 2006년 아소 다로(麻生太郎, Aso Taro)가 ‘자유와 번영의 호’를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Aso 2006).
- 아소가 제안한 ‘호(Arc)’는 자유와 법치를 증진하기 위한 확장된 네트워크 구상으로 베트남과 우크라이나까지를 포함하는 확장된 네트워크임.

○ 2006년 12월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인도 총리의 일본 방문 이후, 쿼드가 포괄하고자 하는 지리적 경계가 ‘인도-태평양’으로 명확해졌으며, 도쿄 방문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함(Government of India 2006).

○ 2007년 초 딕 체니(Dick Cheney) 미국 부통령이 쿼드에 대한 관심을 표명. 동년 2월 호주 방문 시 존 하워드(John Howard) 총리와 쿼드 가능성에 대한 협의 시작(Shanahan 2009). 동년 5월 처음이자 마지막 쿼드 1.0 회의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비공식으로 추진되었음.

- 체니 부통령은 호주 방문시 쿼드 1.0 형성을 위한 인도의 참여 검토를 호주 측에 요청하였으며, 이후 2007년 4월 아소와 아베 총리가 각각 인도와 워싱턴 방문을 통해 첫 쿼드 1.0 회담이 성사됨(Madan 2017).

- 쿼드 1.0의 유일한 회의는 2007년 5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포럼(AFR) 회의 이후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재난구호를 포함하여 대화 파트너의 공통 관심 분야를 논의했다는 언급만 확인 가능. 공식 의제, 후속 회의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음이 호주 의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됨(Parliament of Australia 2007).
  
- 쿼드 1.0은 시작과 달리 미국을 제외한 3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속화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일본, 호주의 국내 요인이 쿼드 1.0의 지속화가 이뤄지지 못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일본은 쿼드 1.0을 주창한 아베가 2007년 9월 사퇴하면서 쿼드에 대한 중요도가 일본 내에서 감소하였으며, 호주는 쿼드 1.0을 지지했던 존 하워드 총리가 차기 총리로 연임되지 못하고, 친중파로 알려진 러드(Kevin Rudd)가 총리로 지명되면서 쿼드 1.0의 지속이 불가능해 짐(Paik and Park 2021).

## (2) post-2017

- 2007년 5월 쿼드 1.0 회의 이후 약 10년간 4개국의 공식-비공식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양자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삼자 및 양자 군사 훈련이 두드러지게 발생함.
  - 미국의 2011년 '아시아 회귀' 전략과 중국의 성장, 지역 내 영토 분쟁 격화 이후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 특히, 쿼드 참여국가와의 협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양자간 군사훈련 및 삼국간

외교, 국방회담 격상 등이 이어지면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쿼드의 협력 내용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

- 군사 훈련은 양자 훈련이 주를 이루며 대표적 훈련이라 할 수 있는 Malabar 훈련 이외에 AUSINDEX, Talisman Saber 등의 훈련이 진행. 주목할 점은 201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훈련이 개시되고, 기존의 양자 훈련이 삼자 이상의 참여로 확대됨.
  - Malabar 훈련은 미국·일본·인도 삼국이 영구 파트너로 참여하는 해상 훈련으로 1992년 인도와 미국의 양자 훈련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일본이 영구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양자가 아닌 삼자 훈련으로 전환 됨(Raghuvanshi 2015).
  - 호주와 인도는 2014년 양국간의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지속 및 국방 협력 강화 논의 시작. 양국은 2015년 ‘AUSINDEX 2015’를 시작으로 2년 주기의 해군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Bagchi 2017), 2019년에는 호주 방공훈련인 ‘Pitch Black’에 인도 해군 합류(Bachhawat 2019). 특히, AUSINDEX 훈련은 잠수함 추적과 교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중국 잠수함 출현에 대한 대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예상됨(Australian Government 2017).
  - 호주는 ‘2017 외교정책백서(2017 Foreign Policy White Paper)’에서 인도를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과 함께 호주의 권리와 지역 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국가(first order)로 인정함.
  - 미국과 호주 양국간 합동 군사 훈련인 ‘Talisman Saber’ 훈련

은 2005년부터 2년 주기로 지역내 비상사태 대비 및 테러 위협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음. 2015년 처음으로 일본군 40명이 본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2019년에는 인도가 옵저버로 참여하였음(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2021; Australia Department of Defence 2019; Yeo 2019).

- 쿼드 회담이 지속되지 않던 10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도 군사훈련 이외에 양국 또는 삼국간의 안보 협력은 꾸준히 확대되어왔으며, 쿼드 2.0이 개시된 현재는 4개국 장관급 회의가 외교, 국방 차원에서 2+2로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음(Paik and Park 2021)
  - 미국·일본·호주로 구성된 3자 회담은 2001년 차관급에서 시작해 2006년부터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으며, 미국·일본·인도 3국 회담은 2011년 차관급으로 시작해 2015년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음.

### (3) 쿼드 2.0

- 쿼드 1.0이 중단된 10년 동안 중국은 경제·군사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위치 또한 크게 변화되고, 이러한 현상은 쿼드 4개국의 對중국 인식 및 관계에 대한 변화로 이어짐.
  - 특히 쿼드 1.0이후 공백 기간 동안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력 강화 및 영토분쟁 격화로 호주, 일본, 인도의 대중국 불안은 증가 일로에 있음.

○ 쿼드 4개국 모두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현상 변경 세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지리적·경제적 관계로 인해 직접적 견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화협력체를 조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쿼드 2.0을 재개함.

- 일본은 중국과의 해양분쟁(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이 진행중이며, 대만해협과 근접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지역질서에 있어 중국의 군사안보 특히 해양에서의 군사 성장을 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됨.
- 호주는 중국과 영토문제 같은 직접적인 부정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 호주의 국내 정치에 관여와 간섭을 한다는 정치적 논란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발생하기도 했음.<sup>11</sup>
-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 달리 가장 중국과 협력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과 파키스탄의 협력적 관계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쿼드 2.0은 post-2017 기간 동안 이어온 양자 및 삼자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쿼드라 할 수 있음.

- 쿼드 2.0은 비전통 안보에 대한 협력 이외에도 해양역량 강화,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영역에 대한 인식,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공동의 관심사가 보다 세부화 되고 명확해짐.

---

11 호주는 2019년 '외국인 내정간섭 금지법(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을 발효하였으며, 2020년 12월에는 외국인 투자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하여 2020년 12월 관련법을 개정(Australian Government 2018; 연합뉴스 2020).

○ 2017년 9월 8일 마닐라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렉스 틸러슨(Rex Wayne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 줄리 비숍(Julie Bishop) 호주 외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郎, Kono Taro) 일본 외무장관은 4자 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쿼드의 재개를 제안하면서 2017년 11월 12일 마닐라에서 4개국 대표(차관보급) 회담이 추진됨(Yuda 2017).

- 2017년 11월 12일 마닐라에서 열린 쿼드 2.0의 회의 주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유지', '북한과 같은 국가의 위협 대응', '테러 대응', '항행의 자유' 등 기존 쿼드 1.0 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장하였음.
- 쿼드의 재개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인도양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바다를 가로질러 자유 무역 및 방위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특히 중국이 군사 주둔지를 구축하고 있는 해역(특히,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 쿼드 2.0의 첫 회담 이후 공동 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이 개별적으로 대화 내용을 발표하였음.

- 발표 내용은 각국의 이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음은 확인 가능함.
- 2017년 11월 쿼드 2.0 회담이 개최된 2년 후인 2019년 유엔총회를 계기로 쿼드 4개국이 유엔에서 장관급 회동을 가졌으며, 2020년 10월 외교장관회의, 2021년 2월과 3월 각각 외교장관 화상회의와 정상회의를 진행하였음.

- 2021년 3월 쿼드 1.0이 구성된 17년 만에 첫 공동 성명서 발표. 공동 성명서는 쿼드 1.0 결성 이후 각국이 개별적으로 대화의 내용을 발표한 2017년에 비해 세분화·구체화 됨.
- 쿼드 2.0이 쿼드 1.0에 비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점은 동남아시아의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ASEAN 중심의 지역 건설과 메콩강 하위지역의 중요성, 다자간 기구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임.

<표 2> 쿼드의 내용 변화 (2004-2021.03)

	쿼드 1.0 (2004)	쿼드 2.0 (2017)	공동 성명 (2021)
변화 내용	결론 -공식의제 없음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규칙을 기반으로 한 질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4자 파트너	-강요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지역을 위한 노력 -4자 파트너 삭제
	재난구호 -공동의 관심 사임을 확인	N/A	-COVID-19가 건강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 노력 -기후변화 방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리적 경계 (인도-태평양) 확정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

변화 내용			비전 공유	-인도-태평양과 그 밖의 모든 국가의 위협에 대응
	규칙에 기반한 질서	N/A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 유지	N/A
	통항의 자유	N/A	-항행의 자유	N/A
	국제법 존중	N/A	-국제법 존중과 평화로운 분쟁 해결	N/A
	연결성	N/A	-신중한 자금 조달을 기반으로 국제법 및 국제 기준에 일치하는 연결성 향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 대응 노력 -인도주의적 지원 -품질 인프라 투자** 강조
	해양안보	N/A	-해양안보	-유엔해양법에 기반한 국제법 존중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규칙에 근거한 해양 질서
	북한/핵확산	N/A	-북한의 핵프로그램 및 불법 행위 감소를 위한 협력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denuclearization)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의 필요성
	테러리즘	N/A	- 대테러 대응	N/A
	영토 보존	N/A	N/A	-영토 보존 지지
아세안 중시	N/A	N/A	-아세안의 통합과 중심성, 아세안 전망에 대한 강력한 지지	

변화 내용	미얀마	N/A	N/A	-민주주의 회복의 시 급성
	워킹그룹	N/A	N/A	-의료·과학·금융· 제조 부분의 워킹 그룹 설립 -국제 표준 및 혁신 기술 협력 촉진을 위 한 워킹 그룹 설립 -기후활동 강화를 위 한 워킹 그룹 설립
	후속 회의	-후속 회의 논 의 없음	N/A	-연 1회의 외무 장관 대화 -2021년 말 정상회 담 예정

출처: 저자 구성.

주1) 쿼드 1.0은 공동성명문 및 각국의 개별 발표 내용이 없으므로, 호주 의회 회의기록을 바탕으로 작성.

주2) 쿼드 2.0은 회담 이후 각국의 개별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3국 이상의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 효과적인 백신 생산에 대한 공정한 접근,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 세계 보건 강화, 다자간 기구(WHO, COVAX)와의 협력에 대해 언급.

\*\*\* 품질 인프라 투자의 경우 2019년 11월 회담에서 "G20 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과 같은 국제 표준 기준 조정안 마련 강조.

○ 쿼드 2.0은 쿼드 1.0에 비해 확장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주제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화되고 명확해 진다는 것을 2017년 각국의 발표 내용과 공동 성명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음.

- 2021년에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쿼드 협력국 확장 가능성과 對중국 견제를 위한 내용이 대다수임을 뚜렷하게 확인시킴과 동시에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또한 전달하였다고 보임.

- 쿼드 2.0이 처음 시작된 2017년과 달리 2021년 작성된 공동성명에서는 기존의 '4자 파트너'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쿼드 대화 협의체 참가국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7년 각국의 발표에서 인도가 유일하게 언급한 '포용적인(inclusive)'이라는 단어를 2020년 공동성명서에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견제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인도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보이며, 이와 동시에 反중국·對중국 협의체가 아님을 표명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그동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해오던 '신뢰성 있는 5G 네트워크 공급업체 사용', '메콩강 하위 지역 문제'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상 안보'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쿼드 2.0이 중국 견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냄.

## 2. 쿼드 국가들의 군사·경제 협력

### (1) 군사 협력

- 쿼드의 대표적 군사 협력이라 할 수 있는 해상 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테러 위협에 대한 대비가 주목적이라고 표명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진주목걸이 전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대표적 해상 훈련이라 할 수 있는 Malabar 훈련은 2007년 이전

에는 주로 인도의 서해안과 페르시아만 지역 중심으로 훈련이 이뤄졌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필리핀해, 일본, 벵골만, 아라비아해가 추가되어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상의 해로와 중첩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쿼드 협력국인 미국·일본·호주·인도는 쿼드라는 틀 내에서 양자 또는 삼자 훈련을 지속. 특히 Malabar 훈련은 1992년 인도와 미국 간의 양자 훈련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일본이 영구 파트너로 참가하였음(Government of India 2020).
  - 훈련은 매년 이뤄지며 항공모함 전투 작전, 해상 차단, 대잠수함에 이르는 다양한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Malabar 훈련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호주의 참여라 할 수 있는데, 호주는 2007년 쿼드 1.0 회의가 진행되면서 처음으로 훈련에 참여를 하였고, 2020년 벵골만과 아라비아해에서 이뤄진 훈련이 두 번째 참여임.
  - ‘Malabar 2020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고, 국제규범에 입각한 질서유지를 위해 진행(Government of India, 2020).
  - 호주가 처음으로 참여했던 2007년 벵골만에서 실시된 훈련에는 호주 이외에 싱가포르도 함께 참여하였으므로 쿼드 국가들로만 이뤄진 첫 정식 훈련은 2020년이라 할 수 있음.
  - ‘포용적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임.

## (2) 경제 협력

○ 퀴드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행동 이외에도 퀴드 참여 국가들과 중국의 경제적 밀접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으며, 이는 실제로 중국의 對아세안 투자 증가로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짐.

- 퀴드 국가들의 경제는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를 끊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협력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퀴드국 공동 또는 개별적 인도-태평양 지역 내 투자 강화가 시작됨.
- 일본은 규칙 기반의 질서, 항행의 자유, 자유 무역 등의 증진 및 확립, 경제적 번영 추구 등을 위해 ‘품질 인프라 파트너 관계(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구성을 제안함 (Akamatsu 2019).
- 미국은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약 39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미국의 개발원조 정책을 통해 2004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의 거버넌스 촉진을 위해 약 21억 달러를 지원함.
-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2018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Business Forum)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초 자금으로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Remarks 2018).
-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관계 향상을 위해 3억 달러 지원 계획 발표. 이는 해양안보와 관련된 프로젝트(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제도, 벵갈 베이 등지의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평화유지활동, 초국가범죄 대응 등)에 사용될 예정임(Department of State 2019).

- 2018년 일본의 JBIC, 미국의 OPIC, 호주 DFAT와 Efic가 정부 간 MOU를 통해 3자 파트너십을 공식 문서화 하였으며, 2019년 파푸아뉴기니 LNG 프로젝트에 공동 자금 조달을 합의함 (OPIC·JBIC·DFAT/Efic 2019).





# IV

## 결론: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IV. 결론: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쿼드 1.0이 결성되었을 당시 미국, 일본, 호주 간에 쿼드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중국을 보는 시각 등이 서로 달랐으며, 결과적으로 각국의 서로 다른 시각차는 호주, 인도가 약한 고리로 작동하여 쿼드 1.0을 지속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드는 계기가 됨.
  - 인도는 쿼드의 시작을 반중국 포럼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단지 쿼드 1.0을 ‘군사적 차원(military dimension)’이 아닌 지역 협의 포럼의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인도주의 지원 및 재난구호(HAD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의 의미로 참여함(Samaranayake et al, 2014).
  - 호주의 쿼드 1.0 참여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 호주가 가진 지리적 불리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하였음.
  
- 쿼드 1.0 이후 10년 만에 2017년 쿼드 2.0이 개시되었으며, 이전 회담에 비해 보다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공동의 합의를 통해 2021년 공동성명문 발표라는 성과로 이어짐.
  
- 쿼드 2.0의 시작은 1.0과는 다르게 중국의 해양내 세력 확장과 동

시에 군사력 강화 등의 현상이 쿼드 4개국에게 공동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차이점을 가짐.

- 중국의 군사력 증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 형성은 미국에게 기존의 지역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는 위협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함.
- 인도에게 중국의 쿼드 1.0 구성 당시와 달리 시진핑 집권 이후 이뤄진 전략들(남중국해 지역의 군사시설 건설과 섬의 주권 주장 및 진주목걸이 전략)은 중국의 對인도 포위 전략으로 비춰짐.
- 호주 또한 최근 불거진 중국의 호주 정치 간섭 등의 문제가 기존의 중국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던 호주에게 관계 노선을 변경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 됨.

○ 쿼드 1.0이 시작된 2007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이후 중국의 4개국 정부에 대한 공식적 항의 표명과 2020년 중국의 쿼드에 대한 불만 표명에도 미국은 쿼드 2.0이 對중국 견제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강조했다.

- 중국은 2007년 쿼드 4개국이 합동 회담 계획을 인지한 후 쿼드 4개국에 공식 외교 항의(formal diplomatic protests)를 표명했으며, 2020년 쿼드 회담에 대해서는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王文斌, Wang Wenbin)을 통해 “배타적 파벌 형성이 아닌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한 다자 협력을 해야 하고, 제3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닌 지역간 상호이해와 신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Ali 201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 2021년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안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1년 쿼드국 정상회담은 중국의 도전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회담의 근본적 목적은 기후위기, COVID-19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에 관한 것이었음을 시사했음(White House 2021a).
  
- 쿼드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체가 아님을 쿼드 4개국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2017년 재구성된 쿼드 2.0의 전반적 내용에 따르면 2011년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미국 국무부 장관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이후 변화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이 반영된 협의체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임.
  - 미국은 2015년 안보정책에서 ‘영토분쟁 특히, 아시아의 영토분쟁에서 발생하는 강압과 독단에 따른 행동을 비난’하고, ‘국제법에 따른 분쟁 해결 장려’등을 언급했음(The White House 2015: 13).
  - 특히,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재균형 추진에 관해서는 ‘중국이 해양 안보에서 무역과 인권에 있어 국제 규칙과 규범을 고수’,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의 면밀한 주시’ 등의 내용을 포함 하였음(The White House 2015: 24).
  
-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재조정과 쿼드 1.0 이후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지역 안보 불안은 기존의 약한 고리로 여겨졌던 인도와 호주의 안보적 불안과 동일화 되고, 결과적으로 쿼드 2.0이 성공적

으로 재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임.

○ 2017년 쿼드 2.0 개시 이후 각국의 개별 발표 내용과 2021년 공동 성명은 對중국 견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나, 쿼드 4 개국의 실천적 행동 및 세부 내용은 중국 견제 정책임을 부정하기 어려움.

- 2007년 쿼드 1.0이 중단된 이후에도 4개국의 양자 및 다자 군사 협력은 지속됐으며, 아세안 국가들의 對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투자 협력 또한 강화해 나감.
- 특히, 2021년 공동성명에는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사항으로 작용했던 ‘사이버 안보’, ‘유엔해양법 존중’, ‘민주주의 회복’,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가 명확히 명시되면서 쿼드 2.0이 對중국 견제가 목적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임.

○ 2017년 쿼드 2.0에 대한 공동성명서는 ‘4자 파트너’ 문구를 삭제 하면서, 쿼드 플러스에 대한 가능성 및 다자 참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가능해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쿼드가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아닌 ‘소다자대화협의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입’과 ‘탈퇴’라는 개념이 아닌 국익에 따른 ‘부분적 참여’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됨.
- 특히, 2021년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적 규범’, ‘비확산 노력’,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 지지’, ‘사이버 안보’, ‘메콩 지역’,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

정', '항행의 자유', '국제법 존중', '미안마', '기후변화' 등의 내용 삽입을 통해 한국의 입장이 쿼드와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현재 COVID-19 백신 협력, 반도체 협력, 기후 변화 등의 문제에 한국이 보여준 행보는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워킹 그룹 설립 초기 멤버로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필요성 또한 고려 가능할 것임.

○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은 대만과 중국 사이의 갈등 증가, 미국의 아프간 철수로 인한 동맹국들의 불안 증가,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인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중국은 8월 17일 대만 인근 해역과 공역에서 작전함정, 대잠기, 전투기 등을 동원해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2일에는 이례적으로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 하는 등 긴장감을 고조시킴 (김윤구 2021; 윤고은 2021b).
-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동맹국들에게 미국에 대한 불신과 동맹 유지에 대한 불안을 유발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인 대만, 한국, 일본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됨.

○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관한 발표를 통해 미국의 국익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대한 더 이상의 투자 불가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음(The White House 2021b).

- 특히,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 동맹국에 대한 미군의 철군 및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였으며, 이는 여타 동맹국에 대한 불안감 감소와 더불어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보임.

○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수이후 상호 접근과 관련 민주주의국가 및 G7과의 협력을 강조를 하였으며, 민주주의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은 캠벨(Kurt Campbell)의 과거 기고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캠벨은 2021년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의 기고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구축을 강조하였음.
- 중국 견제를 위해 모든 문제에 초점을 맞춘 거대연합(form a grand coalition)구축 보다는 영국이 제안한 D-10(G-7, 호주, 인도, 한국)을 통한 분야별 접근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언급 (Campbell and Rush 2021).

○ 향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기대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10 회담, 그리고 한국의 참여는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에 더욱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임.

- 6월 개최된 G7회의는 인도, 호주, 한국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D-10 회담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12월 화상회의로 개최 예정되어 있는 민주주의국가 지도자

들과의 회의 또한 동일한 형태로 개최될 가능성 높음.

- 한국의 선진국 진입, G7 초청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평화(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 가능성 및 권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에 새롭게 개편된 신남방정책플러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 특히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초국가협력을 강조하고 있음(신남방특별위원회 2021).
  - 신남방정책플러스의 7개 이니셔티브 중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인프라 개발 지원,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산업 협력,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초국가협력 등이 쿼드의 주요 내용과 일치됨을 알 수 있음(신남방특별위원회 2021).
- 한국은 쿼드 가입과 관련된 공식적 논의가 없었으며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G7 확대 회의 참여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의미가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됨.
  - 그러나 G7 회담 내용이 쿼드 공동발표보다 反중국적 성격이라 할 수 있는 위구르 및 홍콩의 자치 허용, 대만해협 및 양안이슈, 중국 코로나 기원 재조사 등(G7 2021)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 G7 회담 내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G-10으로서의 활동 또한 부담스러운 결정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쿼드 초기 멤버인 인도·호주와 동일하게 중국과의 관계와 이에 따른 입장선택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호주는 對중국 수출 비중 등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에게 임대 해준 다윈 항구의 임대 계약 재검토, ‘외국간섭 방지법’ 통과 등 對중국 직접 제재를 시작하였음.
- 인도는 호주와는 다르게 최근 라다크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먼저 히말라야 라다크 지역 판공초(Pangong Tso)주변에 주둔했던 병력 철수,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최 지지, 시진핑 주석의 인도 방문 타진 등 호주와는 다른 행보가 이어짐(최원기 2021).
- 중국은 인도와 호주가 쿼드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탈퇴 압력을 가했으며, 결과적으로 쿼드 1.0은 2007년 이후 10년 동안 논의되지 않았다는 경험으로 한국을 또 다른 약한 고리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큼.
- 결국, 한국은 현재 북한 문제, 사드 배치 이후 경제 보복에 대한 경험, 최대 교역국으로서의 관계 등으로 쿼드 참여에 대한 신중론 또한 필요함.

○ 쿼드 가입국인 호주와 인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 차이로 볼 때 향후 한국의 쿼드 참여시 ▲중국의 국제적 상황, ▲북한과의 관계, ▲한국의 국제적 역할 변화 등에 따라 과거와 같은 경제적 보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

○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쿼드 목표의 중첩성을 떠나 현 정권이 구축하고자 하는 ‘신남방정책’의 기초 실천 및 향후 아

시아-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도 쿼드의 전체 행동 내용과 동일 방향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 보임. 이에 중견국가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반도체, 비전통 해상안보, 보건 협력 등)에서 쿼드 국가들과 소다자 협력 증진 추구는 필요함.

## 참고문헌

- 국방일보. 2019, “러시아 『Tcentr(Central) 2019』 훈련과 중국 참가,” 『국방일보』, (9월 18일).
- 김계환. 2020, “중, 지부티에 항모 정박 가능 첫 해외 군사기지 확보,” 『연합뉴스』, (5월 19일).
- 김윤구. 2021, “중국, 대만 부근 해역·상공서 합동훈련... “도발 엄정 대응,” 『연합뉴스』, (8월 17일).
- 나확진. 2017, “中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운영권 확보... 인도양 ‘일대일로’ 가속,” 『연합뉴스』, (7월 30일).
- 배인선. 2016, “중국 선박 파키스탄 과다르항 첫 출항식...일대일로 ‘탄력,’” 『아주경제』, (11월 14일).
- 신규진. 2020, “中-러 군용기 19대 KADIZ 무더기 진입,” 『동아일보』, (12월 23일).
- 연합뉴스. 2020, “호주, ‘민감한’ 안보 분야 외국인 투자 규제 대폭 강화키로,” 『연합뉴스』, (6월 05일).
- 윤고은. 2021a, “중국 군용기, 5월 들어 9차례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 『연합뉴스』, (5월 06일).
- . 2021b, “중국, 신형미사일 발사시험...대만·미국·일본 겨냥,” 『연합뉴스』, (8월 22일).
- 최원기. 2021, “인도와 쿼드 정상회의: 참여 배경과 향후 전망,” 『ifans focus』.
- 황희경. 2013, “中 탄자니아 항구 개발은 군용 항구 확보 목적,” 『연합뉴스』, (3월 25일).
- Akamatsu, Takeshi. 2019, “Promoting Quality Infrastructure, presented at a seminar, ‘New Tools for Sustainable Infrastructure

- Development,” sponsored by the *US government as a side event of the 52nd Annual Meeting of Asia Development Bank.*
- Ali, Mahmud. 2019, “New ‘strategic partnership’ against China,” *BBC News*, September 3.
- Aso, Taro. 2006,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Japan’s Expanding Diplomatic Horizons,” *Speech,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ovember 30.
- Australia Department of Defence. 2019, “Talisman Sabre 2019, Largest Ever Bilateral Defense Exercise in Australia Opens.” *News*, July 9.
- Australian Government. 2017, “2017 Foreign Policy White Paper. Opportunity Security Strength,” *Australian Government*.
- . 2018,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No.63, 2018.
- Bachhawat, Aakriti. 2019, “No Longer in a Cleft Stick: India and Australia in the Indo-Pacific,” *The Strategist*, June 25.
- Bagchi, Indrani. 2017, “India, Australia kick off joint exercise Down Under,” *THE TIME OF INDIA*, June 15.
- Boutik, Biswas. 2020, “인도-중국 카슈미르 라다크 충돌... 최소 20명 사망,” *BBC NEWS 코리아*, 6월 17일.
- Campbell, Kurt M. and Rush Doshi. 2021,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A Strategy for Restoring Balance and Legitimacy,” *Foreign Affairs*, January 12.
- DoD. 2020,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ual Report to Congress.
- Department of State. 2019,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Department of State.
- G7. 2021, “Our Shared Agenda for Global Action to Build Back Better,” CARBIS BAY G7 SUMMIT COMMUNIQUÉ.

- Government of India. 2006, "Joint Statement Towards India-Japan Strategic and Global Partnership." *Media Center, Bilateral/Multilateral Documents*, December 15.
- . 2020, "Malabar 2020 Naval Exercise." *Press Information Bureau*, October 19.
- Kliem, Frederic. 2020, "Why Quasi-Alliances Will Persist in the Indo-Pacific? The Fall and Rise the Quad," *Journal of Asian Security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7, No.3.
- Lee, Yimou and Shwe Yee Saw Myit. 2017, "Exclusive: China seeks up to 85 percent stake in strategic port in Myanmar," *Reuters*, May 5.
- Lendon, Brad, and Yoko Wakatsuki. 2020, "Japan's air force faces a 'relentless' burden, imposed by China," *CNN*, July 29.
- Liu, Xuanzun. 2020, "Chinese Navy hold drills amid US violation," *Global times*, April 2.
- Madan, Tanvi. 2017, "THE RISE, FALL, AND REBIRTH OF THE 'QUAD'," *War on the Rocks*, November 16.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Wang Wenbin'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September 29, 2020," Press and Media Service.
-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s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2020, "Foreign investment of permitted enterprises as of(30/3/2020)."
- OPIC · JBIC · DFAT/Efic. 2019, "OPIC(US), JBIC(Japan), DFAT/Efic (Australia) Reaffirm Commitment to Indo-Pacific infrastructure Development," *Statement*, June 25.
- Paik, Wooyeal. & Jae Jeok Park. 2021, "The Quad's Search for Non-Military Roles and China's Strategic Response: Minilateralism,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Regional Balancing,"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30, No.127.

- Parliament of Australia. 2007,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Dialogue record of debate*, May 28.
- Pehrson, Christopher J. 2006, “STRING OF PEARLS: MEETING THE CHALLENGE OF CHINA’S RISING POWER ACROSS THE ASIAN LITTORAL,”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July 2006.
-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016,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CA Case N° 2013-9.
- Raghuvanshi, Vivek. 2015, “Japan to Join Malabar as Permanent Participant,” *Defense News*, October 13.
- Remarks, Pompeo. 2018, “Sec. Pompeo Remarks on “America’s Indo-Pacific Economic Vision”,” on *America’s Indo-Pacific Economic Vision. U.S Mission to ASEAN*, July 30.
- Samaranayake, Nilanthi., Catherine Lea, Dmitry Gorenburg. 2014, “Improving U.S.-India HA/DR Coordination in the Indian Ocean,” *CNA*.
- Shanahan, Dennis. 2009, “Pacific allies aim for India upgrade,” *news.com.au*, March 17.
- SIPRI. 2021a, “Military expenditure by country as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2019-2020.”
- . 2021b, “Military expenditure by country, in millions of US\$ at current price and exchange rate, 1949-2020.”
-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Co. Ltd.
- The White House. 2015,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2017,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2021a,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Jen Psaki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The Briefing Room*, March 12.

———. 2021b.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Eevacuations in Afghanistan,” BRIEFING ROOM/SPEECHES AND REMARKS, August 20.

Vasudeva, Akriti. 2020,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Washington’s Conception of Quad Plus,” *Journal of Indo-Pacific Affairs*, Special Issue.

Weitz, Richard. 2021, “Assessing Chinese-Russian Military Exercises: Past Progress and Future Trends,” CSIS.

Yeo, Mike. 2019, “Japan to Dramatically Scale Up Participation in Australian Exercise,” *Defense News*, June 17.

Yuda, Masayuki. 2017, “Japan to propose dialogue with US, India and Australia,” *NIKKE Asia*, October 26.

신남방특별위원회. 2021. [http://www.nsp.go.kr/kor/policy/policy4\\_1.do](http://www.nsp.go.kr/kor/policy/policy4_1.do) (2021.08.17.)

인민일보. [http://www.chinacore.com/krtj/2021\\_ccp\\_100/202107/t20210701\\_800251824.html](http://www.chinacore.com/krtj/2021_ccp_100/202107/t20210701_800251824.html) (2021.07.09.).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https://www1.defence.gov.au/> (2021.06.26.).